

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시민주도혁명 이어져”

이낙연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게 한 첫 운동”

‘학생 주도 행사’...사회와 공연 모두 학생들이 꾸며

학생독립운동 제90주년 행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계대표,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전국과 해외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됐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나주 간 통학열차를 이용하던 한일 학생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돼 같은 해 11월 3일 광주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항일독립운동이다.

당초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는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했으나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 지난해부터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돼 정부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함께한 역사, 함께할 미래’ 주제로 열려 학생 주도 행사로 꾸며졌다. 전문가사회자를 대신해 남녀학생이 사회를 맡고 학생들이 어쿠스틱 기타 연주, 춤,

합창 등 공연을 선보였다.

제90주년 기념식은 국민 의례,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학생의 날’ 노래 제창 등으로 50여분간 진행됐다.

기념공연 제1막에서는 ‘함께한 역사’ 주제로 학생독립운동 출신 학교 남녀 고등학생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생독립운동과 대한민국 번국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생의 역사를 짚어보고, 제2막에서는 ‘함께할 미래’ 주제로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스토리텔링 중간에는 팝페라 그룹 ‘에클레시아’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자는 내용의 ‘우리는 하나’를 열창했고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랩퍼 강민수군이 출연해 직접 작사작곡한 ‘난세의 영웅, 대한민국 만세’ 랩을 처음 선보였다.

또 가수 서문탁이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버터플라이’를 합창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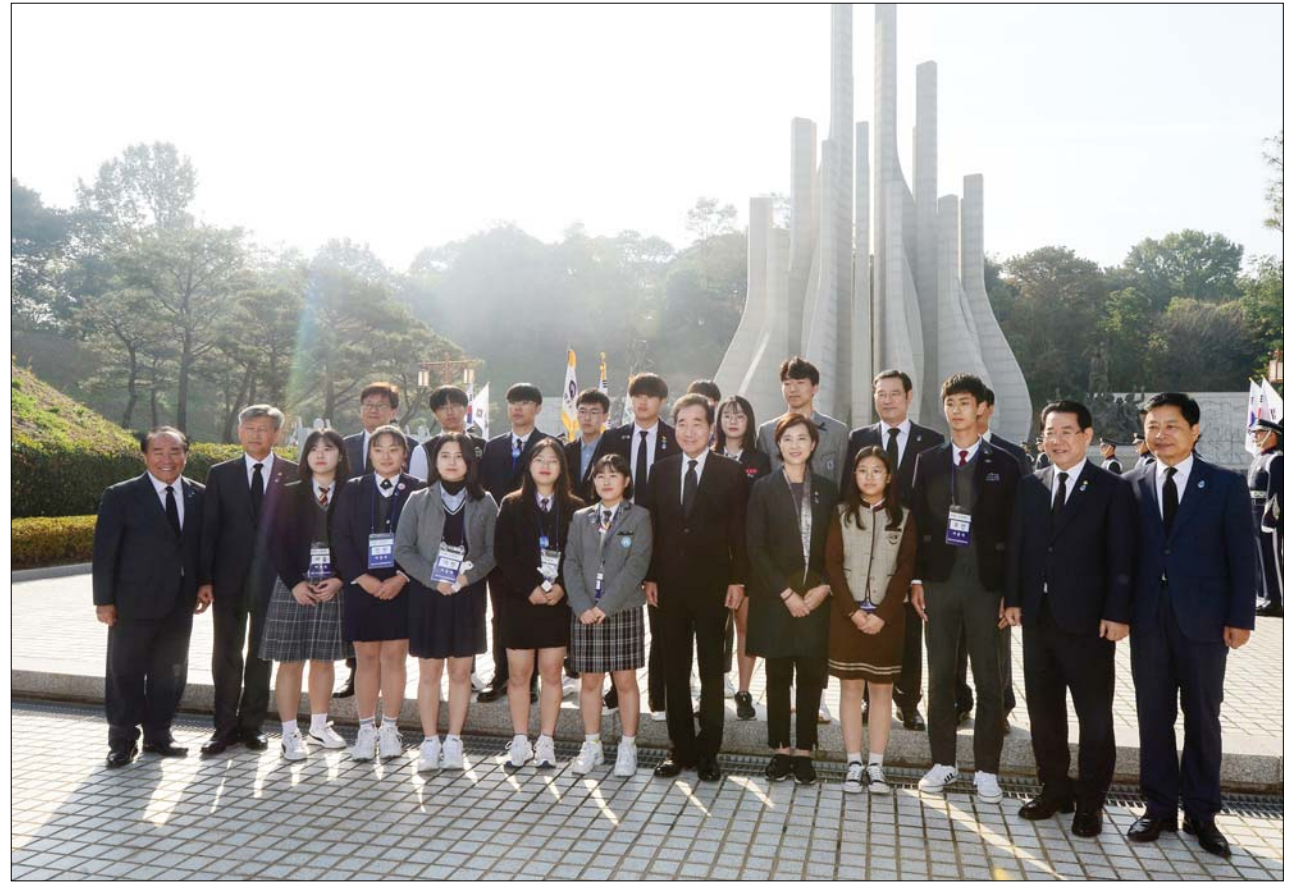
긴장한 학생들의 실수가 행사 중간에 이어지기도 했지만 객석에서 응원과 격려의 박수가 쏟아지며 무사히 행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광주를 영원한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게 만든 첫 번째 운동이 바로 학생독립운동”이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며 시민주도의 5·18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역사의 출발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이다. 학생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랑스럽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참가자 전원이 일어나 ‘학생의 날’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학생독립운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역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인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적으로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기념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청소년 독립페스티벌’, ‘전국 학생 문화예술 축전’

등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한국노총전남본부 이신원 제30대 의장에 당선

“현장중심 노동운동, 노동자 권익보호에 최선”

한국노총 전남본부 제30대 의장에 이신원 현 의장이 당선됐다.

1일 한국노총 전남본부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현 의장인 이신원 단일 후보가 전체 대의원 108명 투표에서 9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제30대 의장에 당선됐다.

이 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남지역 동지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면서 “동지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3년 임기가 끝

나는 순간까지 전남지역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사간에 문제 있는 사업장은 현장중심의 노동운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1976년 고려시멘트(장성공장) 노동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이후 전남 도의회의원과 가스공사 비상임 이사, 호남신문 회장, 명예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의장은 현재 한국노총 중앙 위원 과 중앙 집행 위원, 중앙 정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폭넓은 노동운동으로 보폭을 넓혀 왔으며, 지역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과 은탑산업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확정

4월과 10월 각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24만3000명 해당

전남도는 내년부터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3000여 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 예산은 1459억원이다. 전남도가 584억원, 시·군이 875

억원을 부담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에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카드, 모바일, 지역화폐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지급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지역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교육계획을 세워 마을별, 권역별, 읍면동별 교육을 추진토록 했다.

마을별 정례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실시토록 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은 민족의 근간인 생명산업이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기간산업”이라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증진되도록 전남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만큼, 앞으로 다른 시·도, 농어민단체 등과 협력해 국가 정책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